

[심층] >> 3면
범람하는 가짜뉴스

[기획] >> 5면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 해답은?

[사회] >> 9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인물] >> 12면
박지선 통역사를 만나다



다음 학기 수업 방식, 교육과 안전 모두 지키기 위해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우리학교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면△미러링△비대면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경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학교의 다음 학기 대면 수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평화나비 우리학교 지부, 릴레이 캠퍼스 수요시위 실시해

지난달 26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우리학교 지부 '아울림나비'는 릴레이 캠퍼스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고려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등 6개 학교가 시위에 참여했다. 릴레이 캠퍼스 수요시위는 대학생의 위안부 인식 개선 및 위안부 피해자와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 수요시위는 △행사 취지△평화나비 소개△연대 발언△자유 발언△성명서 낭독△마무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신채원(인문·태국어 21) 아울림나비 회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안부 같은 인권유린 행위 자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본관 앞에서 수요시위 중인 아울림나비 회원들

다. 김수해(서양어·프랑스 21) 아울림나비 회원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며 "전쟁 성범죄와 여성인권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시위를 진행한다.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시위는 현재 1,500차를 앞두고 있다. 이는 단일 주제 시위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의 대전환-도전과 현실'을 주제로 △싱가폴△인도△영국△호주의 인도 전문가와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 교수진의 발표 및 토론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각각 '정치와 경제의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인도와 동아시아의 관계'를 주제로 했다. 먼저 1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빈곤층이 겪는 변화와 인도의 경제와 무역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2부에선 코로나19로 변화한 인도와 △우라나△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인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다뤘다. 지연정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는 "비대면인 만큼 많은 조정을 거쳐 진행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문 교류를 위해 참여 해주신 많은 학자의 열의가 인상 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미수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이번 행사가 우리학교 학생이 인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우리학교 인도연구소는 1995년에 설립돼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해외지역으로 선정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초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지역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인증지역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지역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총장과의 대화 진행해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온'(ON)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엔 △김 총장△최호성 글캠 학생처장(이하 학생처장)△글캠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했다. 총장과의 대화는 온라인으로 송출됐으며 총학이 사전에 학생들로부터 취합한 질문을 바탕으로 △글캠 명칭 정정 문제△스마트 도서관△중복학과 통폐합△3단대로의 학제 개편 시도△송도캠퍼스 등 총 9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글캠 공식 명칭이 2011년 '글로벌캠퍼스'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 시 이전 명칭인 '용인캠퍼스'로 표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혼선을 빚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생처장은 "외부기관에서 용인캠퍼스라고 기재된 문서가 오면 교내 행정부서가 글로벌캠퍼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전 명칭이 적힌 분당과 용인의 버스나 정류장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도서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란 것을 강조하며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170억은 △교비 투입 △모금△부채 등의 방법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공학관과 자연과학관의 리모델링은 화장실과 휴게실 등 학생복 지시시설을 우선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양캠퍼스 간 학문 중복의 여지가 있는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일반 융합전공과 연계 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학과 및 학부 단과대학의 울타리를 낮추야 한다고 전했다. 신철학



▲글캠 총학생회장단과 김 총장이 대화하는 모습

과 설치 계획은 아직 논의된 부분이 없으며 학과 통합으로 잔여 정원이 생길 시 활용 방안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어문계열 3개 단과대 학제 개편 시도에 대해 김 총장은 "반대나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학제 개편을 주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제 개편에 관련해서 교수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 전담반 구성이 논의되는 등 학교는 교내 구성원들의 입장 반영을 위한 준비 과정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융합인재대학의 ICT&AI 모듈이 공과대학의 과특성과 겹치는 상황에서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에 데

이타사이언스 학부가 설립돼 공과대학에 투자되는 자원들이 분산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 총장은 "송도캠으로 인해 글캠 학생이 감축되진 않으며 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상공계열△컴퓨터전 자공학부△통계학과와 협업할 것이다"며 글캠의 학문 영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캠퍼스 특색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000억 규모의 송도캠 개발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련한 교육부의 위치 변경 계획 승인과 자금 총량 방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학교 측은 부지를 반환할 계획은 없으며 빠른 시일 내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 입장이다. 김 총장은 계획의 지연 이유로 교차 확보 문제와 데이터센터가 교육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단 점을 들며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개발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에 대해 오신현(경상·국급 17) 씨는 "우리학교가 가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우리학교 EU연구소, 우리나라-포르투갈 수교 60주년 행사 개최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 EU연구소(이하 EU연구소)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여행△디지털 사진전△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엔 EU연구소를 비롯해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카몽이스문화원△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한국유럽학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임소라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교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필리아 퀴시네트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포르투갈 문화여

행 행사에선 각 분야 전문가가 포르투갈의 △건축△영화△와인△건축을 소개했다. 포르투갈 디지털 사진전에선 △노벨 문학상 수상 20주년 기념△파두의 역사△포르투갈어의 경제적 잠재력△포르투갈 타일을 주제로 작품이 전시됐다.

이어 국제학술대회의 △1부△2부△3부△4부는 각각 △국제사회 속의 포르투갈△유럽과 포르투갈의 탄소중립정책△우라시아의 분쟁과 평화△우리나라에서



▲수교 60주년 행사 포스터

의 포르투갈과 유라시아의 논제들 우리나라-포르투갈 교육 협력으로 구성됐다. 2부와 3부 학술대회에 참여한 신의찬 EU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가 간 교류 및 소통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4부 토론에 참여한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에바 몬티린스카(Ewa Motylinska) 씨는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주제에 대해 토

론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U연구소는 1996년에 설립돼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의 △경제△문화△사회△정치 등을 연구하는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현재 유럽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유락세스(EURAXESS) 우리나라 지부를 유치해 유럽연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학교 내 EU융합 전공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를 겸비한 국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1961년부터 수교를 시작해 이번 해 60주년을 맞이했다. 2011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를 제작하기도 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 열어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 의원)과 외대학보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취지를 지녔다. 간담회엔 외대학보를 비롯해 서언회 소속 20개 대학언론이 참여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및 인사사이에 의원 인사사 사진 질문△현장질문△마무리 인사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간담회에선 △공정성△일자리△주거 문제 등의 청년 문제가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공정한 기회 부여를 우선시하며 지역인재활당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지역인재활당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지역활당제가 역사별이란 의견에 이 의원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부터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 답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IT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총회에서 대대적인 공개 채용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만 5

세 이상 전면 무상교육을 진행하거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국가 차원의 돌봄교육을 활성화해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전했다.

주거 문제에선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적 공급의 부족을 청년 주거난의 원인으로 꼽으며 동시에 질적 공급 면에서도 주거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인 최저 주거 기준 상향 및 교육당국의 자취생 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나아가 연령대에 따라 주거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층의 연령대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 정책에 공감하지 못해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제도화하기보다 공생하려는 자세로 청년 정책을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단 의견을 전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김지우 서언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청년담론이 지속적인 의제로 등장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우리학교 학생들 냉방 시설 가동 기준 변경 요구해

지난해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우리학교 재학생 사이에서 교내 냉방 시설 가동 기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더위에 대한 어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불만을 표하는 글이 60여 건 이상 게시됐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국제학사에서 거주하는 노우빈(서양어·노어 21) 씨는 "낮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힘들었다"고 밝혔다.

설캠은 이번 달부터 냉방을 시작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이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온도에 맞게 냉방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수 우리학교 설캠 시설관리팀 대리는 학생들의 건의만으로 냉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기준이 달라 개인의 불편함으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단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경우 많은 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청소와 점검을 시행하는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고 일찍 냉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건물별로 다른 냉·난방 체계가 적용된다. △백년관△어문관△인문경상관은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냉·난방을 관리한다. 공학관과 도서관은 중앙제어시스템 도입 단계에 있으며 자연과학관의 경우 개별 설치한 에어컨으로 냉방 중이다. 이른제 글캠 시설관리팀 과장은 "냉방 시기를 일찍 당길 순 있지만 밤산 기온 차가 큰 환경의 경우 냉·난방 전환이 어려워 어느 한쪽의 건의만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rm)은 이번 해 냉방을 지난해보다 약 2주 이른 지난달 3일부터 시작했다. 고영승 흡스돔 시설 담당은 "학생들이 방에 오래 있고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 해 냉방 시기를 앞당겼다"며 에어컨 가동을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흡스돔에 거주 중인 김보경(인문·언어인지 19) 씨는 "더울 때 기숙사에 에어컨을 켤 수 있어 쾌적했다"고 전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3(금) ~ 05.10(월)	2021.05.28(금)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4(금) 15:00	2021.07.09(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정보학과(외교인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어언론학과(문화언어언론)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신청서접수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내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6(월) ~ 05.10(월)	2021.05.31(월)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3(목) 15:00	2021.07.0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탐색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인수특선실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범람하는 가짜뉴스, 가려지는 진실

최근 한강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생산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 사건 외에도 가짜뉴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학교 역시 가

짜뉴스가 보도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우리사회를 잠식한 가짜뉴스

가짜뉴스란 언론 기사의 형태로 유포되는 거짓 정보로,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뉴스다. 이에 더해 언론사의 오보, 인터넷 루머 등까지 포함해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가짜뉴스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24일, 고(故) 손정민 씨(이하 손 씨)는 친구 A 씨와 한강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실종돼 3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 사망 경위를 놓고 A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 씨의 가족 중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인사가 있던 정보가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현재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 중이다.

한편 이번 해 2월 한 시민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근거로 이왕재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명예교수(이하 이 명예교수)의 주장을 들었다. 이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mRNA 백신 접종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가짜뉴스는 주 접종 대상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한다.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의 경우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의혹이나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백신에 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금액은 총 30조 900억 원 정도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이유가 '확증편향'에 있다고 전한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별다른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향과 맞으면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널리 확산될수록 그 자체가 뉴스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며 "특히 자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진 SNS 공간에서 확증편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해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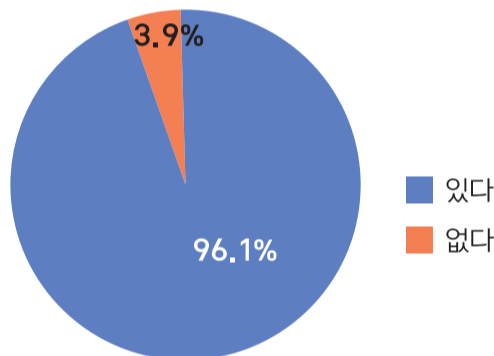
◆ 가짜뉴스에 노출된 우리학교 학생들

2019년 우리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SNS에 우리학교 A 교수가 강의 도중 불법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가수 '정준영'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많은 공감을 받아 화제가 됐고 몇몇 언론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을 반박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 B 씨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기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 행위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던 추측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편향된 정보가 담긴 기성 언론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고 A 교수의 명예는 실추된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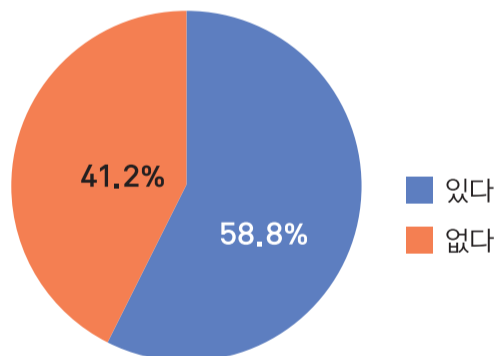
외대학보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가짜뉴스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는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짜뉴스를 접

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에브리타임 등 익명 커뮤니티'가 각각 32.2%와 24.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공인 등의 사생활△소셜 미디어 속 상업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정보△선거철 정치적 목적의 왜곡된 정보가 각각 △38.3%△26.2%△22.2%를 차지했다. 김나현(영어·ELLT 18) 씨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모 여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클럽 '버닝썬'에 자주 출입했던 근거 없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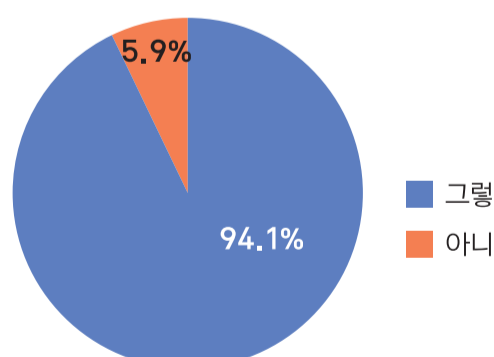
한편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은 경험이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8.8%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3.3%가 평소 정보를 접할 때 '팩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



▲가짜뉴스를 믿은 경험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나

트 체크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개인이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선별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승연(중국·중언문 19) 씨는 "평소 뉴스를 접할 때 특정 관점의 기사만을 보기보단 반대 논조의 기사를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근혜(아시아·인도어 20) 씨는 "스스로 모든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가짜뉴스를 믿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사회에 가짜뉴스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9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 가짜뉴스

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란 생각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가짜뉴스 처벌 등 법적 규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개인의 노력△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미디어 리터러시 등 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32.8%△28.8%△23.2%△15.2%를 차지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상 허위정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SNS와 유튜브를 통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거짓 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정보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유엔(UN)에선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형사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용도로 남용될 수 있다.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짜뉴스를 제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에 앞서 기성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성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뉴스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김춘식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좋은 뉴스는 식견을 갖춘 독자를 양성하고 식견을 갖춘 이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며 "좋은 뉴스 생산이 곧 최선의 가짜뉴스 피해 예방책이다"고 전했다.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접근해 그에 담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박훈민(통번역·영어 15) 씨는 "어릴 적부터 내가 보는 정보가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 합리적 의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매체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등 미디어 내용에 대한 해독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선 '뉴스의 이론과 실제'란 교양 과목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해결책과 언론 및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해결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다음 학기 수업 방식, 교육과 안전 모두 지키기 위해선

지난달 13일, 교육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다음 학기 등교 확대 및 대면 수업 방안 검토를 밝혔다. 방역 당국이 다음 달부터 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의 학사 운영 지침도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방역관리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방안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다음 학기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 수업이 대두되는 이유△대면 수업 시행의 걸림돌△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 대면 수업의 필요성, 대두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혼합한 형태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면 수업 여부는 △수강생 수△수업 형태△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학교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미러링△비대면 수업 방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교육 질 하락△등록금△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이에 따라 △대학△정부△학생 간 학사운영 변경 논의가 잇따르며 다음 학기 수업 방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생들은 3학기째 이어지는 비대면 수업의 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해 2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이번 해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4,107명의 전국 대학생 중 91.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한 불만족도는 83.3%에 달했다.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등록금반환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의 재사용이나 서버불안정 같은 문제로 인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2년 연속 비대면 수업에 따른 문제가 있다"며 "대면 강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강의 시행과 대학 내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학생사회 또한 위축됐다. 일명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20학번과 21학번은 3학기째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권민엽(동유럽·폴란드 18) 폴란드어과 학생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자치기구 부원 모집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학생사회 존속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면 학생자치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민서(사회·정외 20) 씨는 "지난해 신입생일 때 학생자치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 안전한 대면 수업이 전제된다면 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 대면 수업 시행의 걸림돌과 학생들의 생각은?

외대학보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면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학생은 41.7%, 반대하는 학생은 58.3%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수 및 동료와 상호

작용하고 싶어서'가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질 좋은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서' △'등록금이 아까워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각각 △70.6%△64.7%△60.8% 순으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돼서'가 94.3%로 나타났다. '학습이 편리해서'가 47.1%, '개인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가 44.3%로 뒤를 이었다.

40% 이상의 학생이 대면 수업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대면 수업 확대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 지난 학기 미러링 수업이 시행될 당시에도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던 지적이 있다. 당시 이종전공 회화 수업을 수강했던 이서영(사회·미디어 19) 씨는 "학생들끼리 토론하기 위해 책상을 붙이고 밀접한 거리에서 대화해야 했다"며 "중간에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학생도 많았다"고 전했다.

작용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양현주(사회·미디어 19) 씨는 "백신을 모든 학생이 접종한단 보장이 없기에 아직까지 대면 수업을 하기엔 불안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에 대면 수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달 20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온'(ON)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총장)에게 다음 학기 수업 방식에 관해 질문했다. 김 총장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방

역지침과 거리두기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예고가 있어 기준에 부합하게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가변성 때문에 다음 학기 수업방식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빠르면 다음 달 초엔 방침을 정해서 수업 방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글캠 학종지 관계자도 정부의 거리두기 변경이 발표된 뒤 그에 맞게 수업방식과 방역지침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설캠 총학 '외대에게'는 "정부의 단계별 방역지침에 수업 방식을 맞추는 건 교내 구성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기 시작 전 교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다음 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내 혼란을 최소화하

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업운영 방식이 변화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타 대학들은 다음 학기 수업방식에 대한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는 다음 학기 대면 수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신승분자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선제 발견하고 학내 대면활동과 대면 수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단 계획이다. 서강대학교는 다음 학기를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나눠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면 수업 시 강의실은 수강생이 △앞△뒤△좌△우 한 칸씩 띄어 앉을 수 있도록 수강생원의 4배수로 배정해 수강생을 약 40명 내외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보다 나은 다음 학기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과 철저한 방역 지침이 반영된 수업 방식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방역기준 거리두기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1) 대면수업 ① 수강정원 12명 이하 모든 수업 ② 20명 이하 회화(말하기)수업 ③ 30명 이하 PC실습, 체육실기, 이공계 실험·실습 수업 (2) 대면/온라인수업비대면수업(미러링수업) 수강 정원 13-50명 수업으로, 위의 "(1)대면 수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업 (3) 비대면수업 수강정원 51명 이상의 모든 수업 (단, 담당교수와 수강생이 협의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의 허가를 받아 미러링 수업으로 전환 가능)		(1) 대면수업 ① 30명 이하 이공계 실험·실습 수업 ② 12명 이하 회화(말하기) 수업 (2) 비대면수업 위의 "(1)대면수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업			전면 비대면수업
시험	대면시험, 비대면시험, 미러링시험 가능(추후 별도 안내)					

▲ 현재 운영 중인 학부 수업방식

(인원기준 : 수강정원)

또한 백신 접종률의 속도도 대면 수업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등교 확대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민 57.3%가 코로나19 2차 접종을 마친 후 대학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이 다음 학기 대면 수업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교직원과 학생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지만 대학교 직원과 대학생은 백신접종에서 후순위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3분기인 9월엔 3,500만 명 정도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회에 걸쳐 맞는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끝내고 예후까지 확인하는 11월쯤 국내 집단 면역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이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인 9월에 대면 개강이 진행될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두되는 백신기피 현상이 집단면역 형성을 늦출 수 있단 예측도 있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40%의 학생이 백신의 부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 100점짜리 해답은?

지난달 10일, 재학생 익명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우리학교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 우리학교의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이 타 대학과 달라 학점이 3.8점 이상인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채용 시장에

선 학점을 보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점은 일부 기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학교의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 △백분위 환산방식에 대한 반응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타 대학과 비교한 우리학교의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

우리학교는 4.5점 만점 학점 체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학점 백분위 환산 기준은 4.3 만점 학점 체계인 △경희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이 이용하는 환산방식인 ‘성적등급 및 평점 평균 환산기준표’다. 2014년 2학기부터 사용된 우리학교 학점 백분위 기준표에 따르면 $\Delta A + \Delta A0\Delta B + \Delta B0\Delta C + \Delta C0$ 학점은 각각 $\Delta 100\Delta 94\Delta 89\Delta 84\Delta 79$ 점으로 환산된다. 반면 우리학교와 같이 4.5점 만점 학점 체계를 사용하는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등은 $(\text{평균 평점} - 1) * 40 / (3.5 + 60)$ (이하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Delta A + \Delta A0\Delta B + \Delta B0\Delta C + \Delta C0$ 학점은 각각 $\Delta 100\Delta 94.3\Delta 88.6\Delta 82.9\Delta 77.2$ 점으로 환산된다. 학점이 4.4점일 경우 우리학교 학점 백분위 기준표와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을 비교하면 백분위상 0.9점의 차이가 난다.

2019년 성균관대는 타 대학 학생에 비해 자교 학생이 학점 환산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학점 환산식 $(\text{평균 평점} - 2) * 12 + 70$ 을 타 대학 학점 환산식으로 변경했다. 성균관대 학사운영팀 관계자는 “성균관대는 타 대학에 비해 상대평가의 기준이 엄격한 편이고 이전에 사용했던 환산식 또한 불리한 편이었다”며 “학생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백분위 환산을 셋째 자리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4년 2학기부터 우리학교는 학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현재의 환산방식으로 변경했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우리학교의 학점 백분위 환산은 3.8점 이상을 타 대학과 준하는 수준으로, 3.8점 이하를 타 대학보다 높은 점수로 변환했다고 한다. 즉 변경 당시엔 우리학교가 타 대학보다 학점 전 구간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점차 학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며 전체적인 성적이 낮아졌고 타 대학이 백분위 환산방식을 조정하며 우리학교 학생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반응

현재 우리학교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으로 고학점 학생은 타 대학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등 학점 경쟁에 우위가 필요한 학생에게 이 같은 백분위 환산방식은 치명적이다. 이에 타 대학 학점 환산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하는 학생은 주로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다. 일부 학생은 학교의 학점 관련 주무부처 및 총학생회에 환산방식을 변경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점이 낮은 학생은 재수강 등으로 학점을 올릴 수 있으나 학점이 높은 학생은 그런 방법이 없어 학점 환산식의 변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휴학생 A 씨는 “학점 백분위 0.1점에 대학원 합격과 불합격이 나날 정도로 대학원 지원엔 학점 부담이 크다”며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점 관리와 낮은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이란 이중고를 안기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의 고학점 학생 편의를 위해 다수의 나머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과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을 학점 3.8점 이하에 적용할 경우 우리학교 학생의 성적이 최대 5점 이상 유리한 구간이 존재한다. 이에 재학생 B 씨는 “학점이 3.8점 이하인 학생이 그 이상인 학생보다 많으며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에 반대했다.

이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 ‘외대에게’는 “모든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총학생회로서는 타 대학 학점 백분위

로의 개정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주무부처인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및 학교 본부와 소통하며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의 부분 소급 적용 등의 대안을 요구하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학종지 관계자는 “학점 3.8점 아래의 경우엔 여전히 우리학교가 타 대학보다 학점 백분위가 높은 상황이지만 20% 정도의 학점 3.8점 이상 학생이 느끼는 불리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모든 학생을 위해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달 21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이뤄진 총장과의 대화에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가 타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지는 학점 백분위 환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에 기준을 즉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번 해 졸업자 중 학점 백분위 8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은 4.3%p 상승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해 졸업자의 평균 학점은 89.15점인데 비해 이번 해 졸업자의 평균 학점은 89.16점이다. 2019년엔 89.42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현재의 졸업 성적은 더 낮아졌다. A 씨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대학의 졸업 평균 학점은 상승했음에도 우리학교는 지난해와 비슷한데 여기에 학점 백분위마저 타 대학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수은(사회·행정 19) 씨는 “모든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변경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보다 학점 전 구간에서 백분위가 유리한 곳은 최근 환산방식을 변경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다. 시립대는 지난 4월 29일 성적등급 및 평점 평균 환산기준표를 개정했다. 시립대 교무팀 관계자는 “타 대학에 비해 자교 학생들이 학점 경쟁에서 불리한 요구가 있어 최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립대의 환산방식은 우리학교의 학점 환산방식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다. 우리학교의 학점 환산방식 및 타 대학 학점 환산방식과 비교하면 시립대의 환산방식은 백분위가 최대 1점까지 유리하다. 시립대의 환산방식을 적용하면 타 대학 학점 환산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했던 학점 3.8점 이하의 학생에게 불리한 상황은 사라진다.

이에 설캠 총학은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엔 “변경 이후 우리학교 학생들의 백분위 점수 분포도와 변화 정도 파악이 필요하며 상대평가 의무화 제도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대학의 이의 제기 또는 백분위 환산방식 일률화 등으로 변경 이후의 혼란 및 피해를 고려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양 캠퍼스 합동 학사제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본부에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 ‘온(ON)’ 또한 “타 대학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조사하며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며 “상대평가 평가 비율 조정 및 학점 분포 구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종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우리학교의 발전 및 교육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은 우리학교 모든 학생을 위해 학생들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신속한 개정을 통해 학생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학점 백분위 환산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점	우리학교	타대학	시립대
4.5	100	100	100
4.45	99	99.5	99.5
4.4	98	98.9	99
4.3	97	97.8	98
4.2	96	96.6	97
4.1	95	95.5	96
4.0	94	94.3	95
3.9	93	93.2	94
3.8	92	92	93
3.7	91	90.9	92
3.6	90	89.8	91
3.5	89	88.6	90
3.4	88	87.5	89
3.3	87	86.3	88
3.2	86	85.2	87
3.1	85	84.0	86
3.0	84	82.9	85
2.9	83	81.8	84
2.8	82	80.6	83
2.7	81	79.5	82
2.6	80	78.3	81
2.5	79	77.2	80
2.4	78	76.0	79
2.3	77	74.9	78
2.2	76	73.8	77
2.1	75	72.6	76

▲△우리학교△타 대학△시립대 학점 백분위를 비교한 표

◆ 모두를 만족시킬 학점 백분위 환산방식을 위해

지난 4월 발표된 대학알리미의 ‘2021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대학이 비대면 시험과 학생 자퇴 방지를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며 평균 학점은 크게 높아졌다. 전문대학 133개교의 지난해와 이번 해 졸업자의 학점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읽어서 세계속으로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 이집트

2017년 6월부터 1년 간 7+1 파견학생 제도와 자비유학 제도로 이집트 카이로대학교(University of Cairo) 어학당에서 아랍어를 공부했다. 언어가 곧 문화라고 생각한 난 현지인과 아랍어를 소통하기 위해 이집트 유학을 결심했다. 이집트 현지에서 느꼈던 경험은 뜻깊고 만족스러웠다.

어학당 수업은 오전에 진행됐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현지인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 한국 문화원을 찾아가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아랍어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 중에는 이집트 정부에서 개최한 2017 국제 청년 포럼에 참여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 교육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럼에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 낮과 달리 밤엔 파티에서 팔레스타인 외교관이 나 타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을 만나 교류할 수 있었다.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하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같은 고충을 가지고 있던 점이 신기



했다. 이집트 국영방송 DMC 뉴스에 출연해 아랍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경험 또한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집트에서 나는 타인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성장했다. 유학 초기엔 내게 웃으며 다가오는 이집트인이 부담스러웠다. 이집트인이 친절히 다가오는 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거로 생각해 대화를 피하고자 이어폰을 꽂고 명만

보며 걸어갔다. 하지만 이는 내 편견과 오해였다. 이집트인은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하철에 타면 이집트인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족의 안부까지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달랐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낯선 이와 정겹게 교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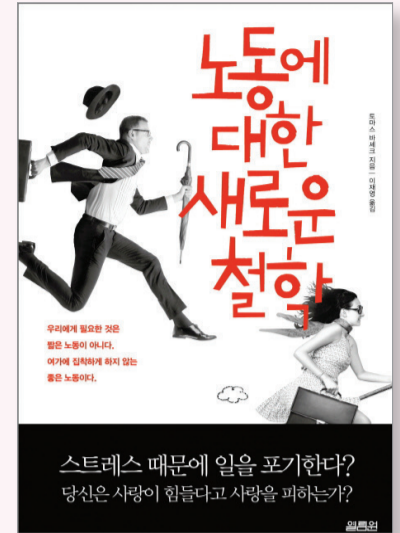
이집트 생활을 돌아보면 학업에 소홀했던 점이 가장 후회된다. 물론 이집트에 가기 전보다 아랍어 실력은 향상됐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랍어 공부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은 해외 체류 기간에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란다.

글 · 사진 장준환(통번역 · 아랍어 16)

독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우리에게 좋은 노동이란-



책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은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작가 '토마스 바셰크' (이하 토마스)는 노동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마스는 전단지지를 돌리는 일부터 독일 철학 잡지의 편집장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어떤 노동이 좋은 노동인지 설명한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 정의내린다.

이어 토마스는 역사 속 노동이 지닌 가치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펼친다. △성경 속 창세기△고대 그리스△중세 수도원△산업혁명△포드주의 역사 전반에 걸친 노동의 변화는 인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노동은 형벌이었기에 노동자는 멸시의 대상이었다. 노동을 통해 재화를 얻기 시작한 뒤에도 노동은 도구로서의 가치만 지녀 여전히 저속한 평가를 받았다. 이후 노동은 자유시간과 대립하는 가치로 여겨졌다. 이에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시간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토마스는 노동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노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에 대한 자기만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판단하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 노동에 대한 자기만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된 노동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동 환경을 성찰하지 않는 대중에 굴하지 않고 좋은 노동을 쟁취하길 격려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스스로 노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다. 토마스에 의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연대까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작가의 신선한 관점은 사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20대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독자가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란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의 어제와 오늘 ⑥

외대의 국제 교류 - 글로벌 어울림의 역사



▲2001년의 고르바초프 명예정치학박사 학위수여식 모습



▲2018년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우리학교 특강 모습



▲1976년의 주한 호주대사 도서기증식 모습

우리학교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교수·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 외국어 전문 고등 교육 기관'이다. 개교 이래 해외의 많은 학술·교육 기관들과 교류 협정을 맺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에 국가적 경제 개발 계획의 착수와 함께 국내 산업이 진흥했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산업 인재 육성은 시대의 흐름이 됐다. 시대적 요구와 국가적 요청에 발맞춰 우리 학교는 '외국어 전공의 고급 인력 양성'을 최우선 교육 목표로 삼았다. 이후 우리학교는 해외 선진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세계 무대로 시야를 넓혀 많은 대학과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1963년 4월 우리학교는 일본의 천리 대학(天理大學)과 역사적인 첫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 100여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에 따라 주한외국대사 등의 도서 기증도 잇따랐다. 1960년대부터 △독일△말레이시아△벨기에△브라질△스페인△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대사나 학술재단에서도 도서와 시청각자료를 기증했다. 우리학교는 학술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외서를 다양 확보하는 한편, 시청각 어학 자료를 확충해 '외국어 교육의 메카'란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공공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교류 대학 간 학점의 상호 인정 △협동강의 실시 등 국제 교류 협력의 내용 확대와 실효성을 담보하는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졌다. 그 이면엔 국제 교류 행정의 효율화와 체계화 노력이 뒷받침됐다. 1994년부터 각 부서에 산재한 국제 교류·협력 업무를 통합해 국제교류처를 신설했다.

이에 △국제 학술·문화 교류 △교환학생 선발 및 관리 △대의 협력 등 국제 협력과 관련된 제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내의 모든 △부서 △연구소 △학과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됐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우리학교가 국제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 및 기관의 수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600여개 기관으로 전 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문화교류나 경제교류 등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을 엄선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통해 한 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한편, 우리학교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찾은 △각국의 정상 △저명한 학자 △주한외국대사들이 우리학교를 찾아 특강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교류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을 함양했다.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되돌아보고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우리학교를 찾은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의 수는 50여명에 달한다. 개교 이래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학교는 외국어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를 이뤄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중심에 선 글로벌 학술·문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인정받아 전 세계로부터 국제 교류와 교육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새로운 지평 맞은 반도체 시장

지난달 13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비전 확인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밝혔다. 반도체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인테리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에도 필수적이다.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며 패권 경쟁이 심화됐지만 차량

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김경문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을 만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알아보자.

김경문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원

Q1. 반도체의 종류는 무엇이고,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자제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 중 하나인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정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단순한 역할을 수행해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죠. 반면 시스템반도체라고도 불리는 비메모리반도체는 △변환△연산△정보처리 등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용도에 따라 품종도 다양해 다 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어요.

비메모리반도체인 차량용 반도체는 내연기관차에 약 3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에어백△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차체 자세 제어 등 자동차의 전자 콘텐츠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요. 최근엔 △자율주행△전방 시현기△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에 사용되며 용도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Q2.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원인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컴퓨터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자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대신 다른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Q2-1. 자율주행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많은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율주행차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주행의 책임이 기계에 있고 사람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행 가능 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차의 경우 반도체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미러(eyeMirror)△핸들 지문인식 등 모든 첨단 기능에 들어가므로 2,000개 이상 필요합니다.

Q3.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이번 해 1분기 일본 도요타자동차(이하 도요타)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이는 도요타와 1위를 다투는 독일 폭스바겐자동차의 순익이 도요타의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적인데요. 도요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타격을 적게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요타가 2개월에서 6개월간 필요한 생산 분량을 재고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생산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필요한 부품을 즉시 공급받아 생산하는 적기생산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을 만큼 공급망에 관심이 많아요. 부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공급선을 미리 파악해 놓는 등 공급망 관리도 철저합니다. 도요타가 해당 방침을 세운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급망이 무너진 이후예요. 비상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해 보일 순 있지만 수개월 분의 생산 분량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Q4.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많은 글로벌리서치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번 해 3분기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물품의 발주부터 사용까지의 기간이 긴 산업이에요. 생산을 하는데 26주에서 38주가 걸리죠. 그러나 현재 수요가 많다고 대답하게 설비를 증설하기엔 부담이 큼니다. 반도체 설비는 수백억에서 조 단위로 비싼 기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급이 늘어나 수요가 안정되면 기업에게 설비투자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설비 증설이 쉽지 않죠.

또한 반도체 생산 설비는 기술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일부 기업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를 주문하더라도 현재 주문이 밀려있고 생산 기간이 길어 반도체를 즉각적으로 공급받을 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품귀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봐요.

Q5. 반도체 수급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는 방법밖엔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수요 증가가 반도체 수급난의 원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곧 수요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된 수요가 지속된다면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는 꽤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Q6. 정부는 반도체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이번 해 미래 차 연구개발 투자를 37% 확대해 약 3,679억 원을 지원했어요. 이 같은 투자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모바일 중앙처리장치 AP(Application Processor)(이하 모바일 AP)*와 차량용 통신장비 등 일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어요.

Q6-1. 해외 정부는 반도체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기에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대응도 우리나라 정부와 비슷해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및 교역 파트너와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마주해온 공급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은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Q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등 반도체가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되고 있던 의견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가,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의 73.6%, 낸드플래시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의 비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EU△일본이 각각 △63%△13%△11%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3%를 점유하고 있어요.

Q7-1. 우리나라 비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이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 비메모리반도체 업체와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한 비메모리반도체 산업은 △로직△센서△이미지 등 분야가 다양해서 전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힘들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쉽게 좁혀나간 것과 대조적이에요. 메모리반도체는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두로 올라올 수 있었죠.

최근 정부는 3대 육성 산업으로 비메모리반도체를 선정하고 지원한단 발표를 하며 비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비메모리반도체에 133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Q8.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산업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해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바일 AP: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에 탑재돼 △명령해석△연산△제어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반도체

증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인공지능 시대에 드리운 그림자

지난달 18일, 류효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 의원)이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부터 우리나라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스

회에 존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해당 범죄의 처벌 기준△딥페이크 범죄를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대두된 딥페이크 악용 논란

딥페이크란 '딥러닝' (Deep learning)과 '가짜'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고인이 된 가수의 영상을 재현하거나 일반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의 온라인 사이트 '마이헤리티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순국열사의 모습을 복원한 자료가 화제에 올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안중근 의사△유관순 열사△윤봉길 의사의 모습이 생생히 복원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기술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가 발표한 '딥트레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통된 딥페이크 영상은 총 1만 4,698건이다. 그중 98%의 영상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로 소비됐다. 또한 해당 영상의 25%가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자의 신원이 일반인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취향에 따라 '여교 사방', '여중생방' 등을 개설해 여성 지인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악질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음성을 위조한 일명 '지인능욕' 사례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엔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 문턱이 높아 일반인이 쉽게 다룰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엔 관련 소프트웨어가 유통돼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 정도면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해졌다. 몇몇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기도 해 딥페이크 악용 범죄 확산에 불을 지폈다. 이흥규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조금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누구든지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해 4월까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약 70%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란물에 등장 얼굴을 합성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16%가 이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종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만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화를 모색하는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에 관한 책임밖에 묻지 못했다. 그마저도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범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의자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6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처벌할 수 있으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단 국민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는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범죄의 최소화를 위해선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따른 수사와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

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청△방송심의위원회△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의지를 보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보완은 물론 보다 고도화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딥페이크는 인물의 △대사△입술의 움직임△표정을 합성해 정교히 표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전공 재학생들이 딥페이크 자동탐지 시스템을 개발해 같은 달 14일, '2020년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딥페이크 자동탐지 시스템은 경쟁 서비스 대비 2배 빠른 탐지 속도와 완벽에 가까운 탐지 성공률을 보였다.

이 같은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선한 의도를 가진 기술 활용을 통해 사회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출처: 노컷뉴스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인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만 처벌할 뿐 처벌 대상에 소비자가 배제됐다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17일, 류 의원은 딥페이크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을 △구입△소지△시청△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허위 영상물 소지자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발의에서 류 의원은 "현재 일반 불법 촬영물을 구입 및 소지한 자는

www.시사한줄토익.com

정치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엔 △미안마 민주화 운동 지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품 공급 협력△우리나라 기업의 400억 달러 투자△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 65세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시작

지난달 27일, 65세부터 74세까지의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총 514만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네이버맵'과 '카카오맵'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해졌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유지 중이다.

경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4% 전망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이번 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제시한 3%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2010년의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민간 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 미국, 일본 여행 금지 권고

지난달 24일, 미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경보 3단계 '여행 재고'에서 4단계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도쿄 하계올림픽 취소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난달 21일 새벽, 같은 달 10일부터 무력 분쟁을 이어오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 유혈 분쟁이 가까스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지만 추가 충돌과 교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국제사

회에선 분쟁의 폭력성보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 분쟁)의 전개 및 배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폭력성 △국제사회의 반응과 문제를 알아보자.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또다시 충돌한 이유는

지난달 이스라엘 대법원은 동예루살렘 인근 정착촌에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을 규제하며 수십 년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립해 팔레스타인들을 서서히 추방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이하 네타냐후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주민을 추방했던 의혹이 뒤따랐다. 경제 불황과 각종 비리로 총선거가 재연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제로 이주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반발해 지난달 7일 반이스라엘 시위를 일으켰다. 그러자 이스라엘 경찰이 시위대가 피신한 사원 '알 아크사 모스크' 까지 들어가 진압하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하마스가 반격하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했고 무력 충돌이 시작됐다.

현지 시각 기준 지난달 21일 오전 2시, 이집트와 유엔(UN) 등이 중재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 합의에 응했다. 같은 달 10일, 양측이 무력 충돌을 시작한 지 약 열흘 만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했으나 충돌 원인을 제공한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팔 분쟁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팔 분쟁의 표면적 원인은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다. 그 이전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서구 식민열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실행한 △맥카혼-후세인 서한△벨푸어 선언△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는 모순된 전외교가 있다. 이후 같은 지역에 대해 이스라엘은 옛 조상의 땅이니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인이 최근 2천 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네 차례에 걸쳐 중동전쟁을 치렀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쟁 상태에 머물러 있다.

◆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든 분쟁 현장

201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알 아크사 모스크 개입과 가자 지구 공격은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충돌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선 약 232명이, 이스라엘에선 1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모두 서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등 민간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표적을 구분하고 군사적 표적만 공격해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의도적으로 △기반 시설△민간인△민간인의 재산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라이 속 국경없는의사회 팔레스타인 자치령 현장 책임자는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 폭격의 여파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민간인 표적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며 3만 8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피난했고 최소 2,500명이 집을 잃었다.

이번 분쟁에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

경없는의사회'의 진료소도 폭격으로 일부 파괴됐다. 또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여러 도로가 붕괴돼 병원으로 가는 길이 막혀 부상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히 저해되기도 했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도 포함됐다. 국경없는의사회 관계자는 "오히려 병원이 우선적인 타겟이 돼 국경없는의사회임을 알리는 표시 깃발을 내렸"고 밝혔다.

◆ 소극적인 움직임 보이는 국제 사회

이번 분쟁에 대해 타 국가들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달 12일, 조 바이든(이하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입장을 밝히며 하마스를 규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침묵하던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한 인권 탄압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양측에 무력 사용 중지의 필요성을 표했지만 일부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확고한 입장을 표방하지 못했다. 무력 사용 중지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달리 △레바논△미국△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시민 주도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기울었다. 이에 같은 달 16일,

유엔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팔 분쟁의 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지켜본 바론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은 없었다"며 "자국 영토로 수천 발 로켓포 공격이 날아든다면 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강경 진압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속출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달 5일, 미국이 이스라엘에 8,000억 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무력 충돌을 부추겼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팔 유혈 분쟁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있지만 타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다음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외교나 안보 차원뿐이 아닌 △불평등△생존권△인권의 문제로 인식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 무엇이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낳았는지 재고해봐야 한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어린이의 시신을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옮기고 있는 모습 (출처: 미국 AP통신)

임채영 기자 02kore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5. 3(월) ~ 5. 14(금)	2021. 6. 7(월) ~ 6. 18(금)
면접전형	2021. 5. 22(토) 10:00	2021. 6. 26(토) 10:00
입격자 발표	2021. 6. 4(금) 16:00 예정	2021. 7. 9(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6. 7(월) ~ 11(금) 예정	2021. 7. 12(월) ~ 16(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집 전공		
교육학 석사 (아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 (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19)
○ 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학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아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05.03(월) ~ 05.14(금)	2021.06.07(월) ~ 06.18(금)
고사장 발표	05.20(목) 15:00	06.23(수) 15:00
면접전형	05.22(토) 10:00 예정	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6.03(목) 14:00	07.07(수) 14: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유학자를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시스템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개월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영어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후회 없는 선택

고등학생 시절 언론인을 지망해 학교 신문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 진로를 계속 고민했다. 대학 전공수업에서 접한 코딩도 적성에 맞지 않았다. 진로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학보사에 들어왔다.

학보사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또다른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대학에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게 중요한 단조로운 삶을 들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전엔 과 학회 활동을 하며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학생과도 교류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자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줄었다. 대면 만남이 줄어들며 대학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도 줄어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학교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며 한 해를 보냈다. 그러던 도중 코로나19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온라인 강의만 들을 수 없단 생각이 들었다.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목적의식 없는 대외활동을 하기 보단 우리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어 학보사에 지원했다.

글을 쓰지 않았던 기간이 길어 처음엔 학보사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글의 짜임새부터 적절한 단어까지 고민했다. 글의 흐름이 벗어나면 모두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다. 애써 기획으로 썼던 제안서가 통과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넣었던 부분이 수정을 거쳐 삭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허무함을 느꼈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번 마감을 거치며 조금씩 방향이 잡혔고 다섯 번째 마감엔 기획기사와 칼럼을 같이 썼음에도 빨리 마감할 수 있어 뿌듯했다.

학보사에 들어오고 난 후 취재와 마감으로 바쁜 한 학기를 보냈다. 과제가 많을 땐 취재와 글쓰기를 병행하는 게 힘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와 학교에 대한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글의 완성도를 위해 애쓰는 과정은 당시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보람찼다. 학보사에 들어온 건 이번 학기의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신수연 기자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책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저자가 어린이들과의 일화를 통해 어린이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먼저 저자는 어린이에게 '착하다'란 칭찬을 할 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주로 어른의 말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는 위계적인 표현이다. 일본의 사회학자인 가토 다이조는 책 '착한 아이의 비극'에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란 개념을 설명했다. 어린이는 타인에게 착하다고 인식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 그렇게 타인 판단 위주의 행동이 고착화된 어린이는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를 계속해서 억압해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아동 대상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어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어린이를 유괴한다거나 어린이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저자는 '어린이'란 단어에 대한 인식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최근 △요리인△주린이△헬린이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각각 △요리△주식△헬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떤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안정한 의미가 담겼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용어를 만든 이유는 '이름', '어

린 것'과 같이 아동을 폄하하는 단어만을 사용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서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부재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위와 같은 신조어는 단어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아동문학평론가인 김지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는 "어린이를 폄하하는 신조어에 계속 노출되면 어린이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난 어린이를 나와 다른 존재로 타자화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어른이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만 인식하며 타자화하기 시작하면 어른과 어린이는 동등해질 수 없단 걸 느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뤄진다. 시청자는 어린이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한다. 또한 △쇼팽몰△식당△카페 등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이가 자신이 문젯거리란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어린이를 배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린이가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어린이에 대한 권리침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를 보고] 인간을 사랑했기에 신은 죽음을 숨겼다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를 보고] 인간을 사랑했기에 신은 죽음을 숨겼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남은 수명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이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기에 쾌락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무지와 이에 따른 적당한 공포는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신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에선 신을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신 '디유'는 험상궂고 괴팍하다. 항상 아내를 무시하며 깔보고 화가 나면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디유는 심심하단 이유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꿀탕 먹이며 스트레스를 푼다. 디유의 모든 권능은 자신만이 출입 가능한 방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발휘된다.

디유의 딸 '에아'는 그런 아버지를 한심하게 여기고 증오한다. 이에 에아는 반항을 결심하고 몰래 디유의 방에 출입해 모든 인간에게 남은 수명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다. 수명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거나 무모해져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한 에아는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자 6명의 사도를 찾아 나선다. 사도들의 평범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은 에아는 그들이 죽음 앞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새 성경이 완성되자 세상은 재창조된다. 불행과 절망뿐이던 세상은 희망만이 존재하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

죽음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부여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변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에게 정신적 슬픔을 선사한다. 한편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도 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자는 자신의 내면에 누구보다 솔직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다. 영화 속 6명의 사도 역시 죽음을 인지한 뒤에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한다. 불행한 삶을 살아 온 그들을 구원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을 한 발짝 뒤에서 관음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죽음이 인간의 소관이라면 우리에게 종교나 철학은 없으며 성찰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수명을 인지하고 삶의 길이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한다. 시대가 지나 과학기술은 무한히 발전했지만 우리 여전히 죽음에 대해 무지하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어쩌면 영문 모를 죽음은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축복일지도 모른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1056호 학보를 읽고 혼란 속 세상, 끝은 온다

김윤지(사회·미디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전 세계에선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이다. 사망자는 800명을 넘었고, 1057호가 발행될 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될지 모른다. 중동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이 점화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무고한 사람들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희생되는 게 안타깝다. 여러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

이번 호에서 두드러진 기사 중 하나는 가상화폐에 관한 심층기사다.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실태와 문제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잘 정리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 열풍의 원인으로 군중심리를 제시한 것이 흥미로웠다. 기사 후반부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타 대학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했다면 더 흥미로운 기사가 됐을 것이다.

사이버 유희 중인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취재한 기획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새

롭게 생긴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사공지와 관련한 내용에 깊이 공감했다.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끝으로 모병제와 관련한 학술 기사도 인상 깊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의 이점△우려되는 점△타국 사례를 골고루 담은 완성도 있는 기사였다. 다만 기사 마지막에 제시했던 징모혼합제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의 주장만큼 이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면 더 인상 깊게 읽었을 것이다.

개강호를 읽은 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는데 벌써 종강호에 기고되는 글을 쓰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시간이 흐른 만큼 학보에 실리는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 점이 두드러진다. 한 학기 동안 학교에 관련된 사건들과 사회 문제들을 취재한 기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보도하는 외대학보가 되길 바란다.

1056호 학보를 읽고 변한 일상 속 마주한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서은진(자연·수학 21)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며 일상은 크게 변했지만 우리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변한 일상 속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도 존재한다.

기획 면에서 다른 학생회비 납부 감소 문제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교내에 생긴 문제 중 하나다. 대면 행사의 잇따른 취소로 학생자치활동이 줄자 학교 측 지원과 학생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이에 학생회는 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회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지하는 등 학생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방역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설캠 일부 건물에 외부인 출입 통제나 발열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교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비대면 수업의 이클래스 서비스 장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험 기간 중 서버가 다운되거나 강의에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원활한 강의 수강이 이뤄지도록 학교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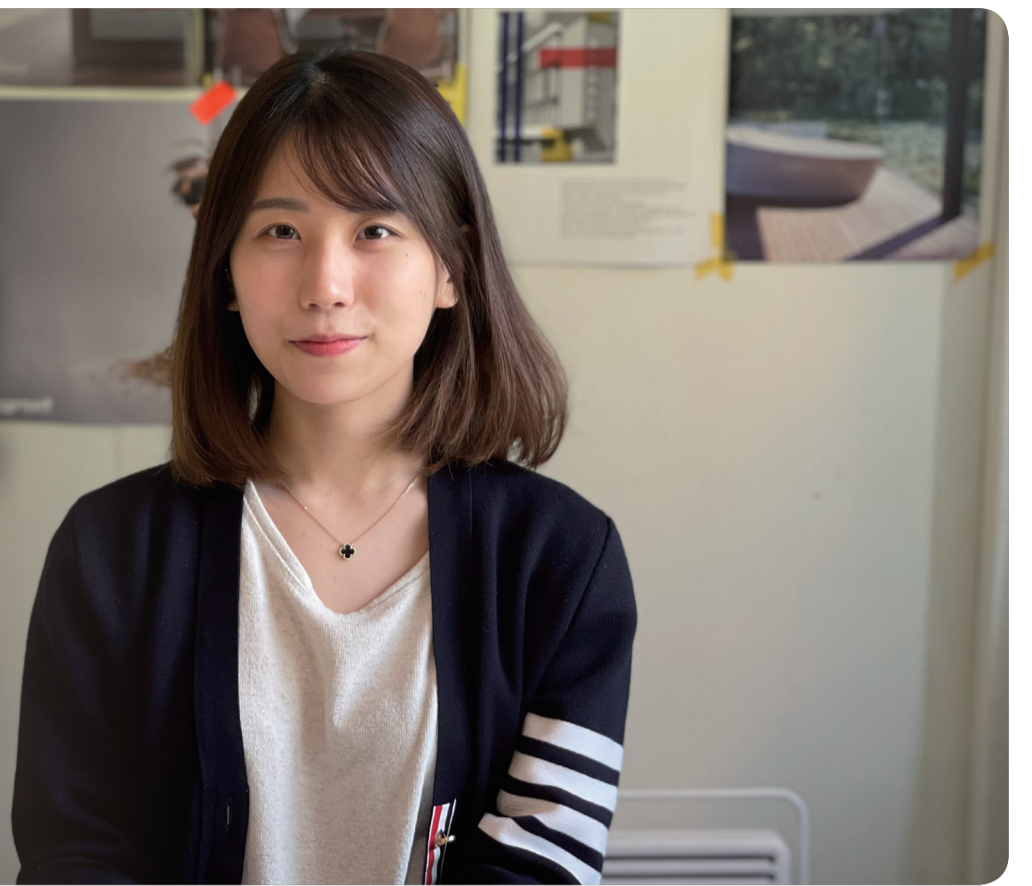
심층 면에선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

으로 활발해진 국내 주식 시장을 다뤘다. 저금리 및 저성장 시대로 인해 2030세대는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겠다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투자에 몰입하거나 관련 지식 없이 투자를 시작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 든다.

사회 면에선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문제를 다뤘다. 최근 평택항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계속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리 모두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때다.

1056호에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교내 외의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다뤘다.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모두가 처음 겪는 팬데믹 시대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e)스포츠 통역의 선구자 박지선 통역사를 만나다



박지선(사회·미디어 14) 통역사는 지난 2017년, 재학 중 방송국 '스포티비 게임즈'의 통역사로 선발돼 통역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우수한 통역 실력으로 전 세계 이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직까지 이스포츠는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다. 이스포츠계 최고의 통역사인 박지선 통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Q1.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창 시절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오니 번아웃을 겪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잘 듣지 않고 휴학도 몇 차례 했죠. 그러다 재학 중 우연히 이스포츠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주 2회 통역을 했는데 점점 일이 많아졌고 학교에 다니며 출장을 가는 일도 비밀비재했어요. 국제대회 통역이 시험 기간이랑 겹칠 땐 일을 마친 후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 시험을 보기도 했죠. 간신히 출석 일수를 맞춰 졸업했어요.

Q2. 언론정보전공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사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역사란 직업을 꿈꾸며 살아온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 공부했기 때문에 확실한 꿈이 없었죠. 대학도 성적에 맞춰 입학해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살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스포츠 경기를 보고 게임을 취미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후 우연히 이스포츠 통역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영어 실력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이스포츠 통역사 업무에 지원했고 운 좋게 붙어 일을 시작하게 됐죠.

Q3. 대학생 때 했던 활동 중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며 도움이 된 게 있나요?

학교의 통번역 수업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생 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모했던 면이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면 당연히 통역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처음 맡았던 업무가 한국어 인터뷰에 영어로 더빙하는 동시통역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동시통역을 처음 해보니 통역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반엔 많이 위축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통번역 수업을 찾아봤어요. 마침 우리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단기 기초 통번역 수업이 있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기초 지식 없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번역 업무를 시작했던 게 부끄러워 3개월간 기초 통번역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번역 수업을 마친 뒤 열린 대회에서 영어중계 캐스터로부터 실력이 좋아졌단 칭찬을 받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중전공으로 독일어를 공부했던 것도 유용했어요. 유럽에서 대회가 진행될 때 독일을 갔는데 독일어를 배운 덕분에 소통에 무리가 없었죠. 몇 주 지내보니 배웠던 독일어를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전공이라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Q4. 이스포츠 통역이 생소한 독자를 위해 이스포츠 통역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라 선수들이 세계 각지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스포츠 국제대회는 매해 네 번 정도 열려요. 국제대회 전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경기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선수의 인터뷰나 경기 각오 또한 제가 맡아 통역과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대회의 해외 방송 더빙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리그가 전 세계로 송출되는데 수훈선수 인터뷰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뷰를 영어로 더빙합니다. 경기 중계를 통역할 순 없지만 그 외 영어 송출 관련 업무는 다 맡고 있어요. 영어 자막 제작이나 영어 자료 검토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만 좋아하는 일이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여러 분야의 통역 중 이스포츠 통역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게임을 좋아해 게임 분야 통역은 자신 있었어요. 게임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이스포츠 통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포츠 통역을 하려면 이스포츠의 역사적 흐름이나 선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야 해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상태였어요. 또한 통상적으로 이스포츠 통역을 하기 위해선 4개의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뿐 아니라 양쪽 언어의 게임 용어를 다 알아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게임을 직접 하며 이런 부분이 체화됐고 돌발 상황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Q5-1. 아직 생소한 이스포츠 통역을 선택했을 때 주저하거나 두렵지는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운이라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 일을 시작했기에 실패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던 안정감이 있었어요. 처음 통역을 시작할 땐 급하게 대체자가 필요해 뽑힌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기회를 잡으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다 확신이 있었죠.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6. 통역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 점이나 습관 등이 있나요?

△어휘력△전달력△표현력을 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상승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해외 방송을 담당하니까 외국 해설진이 사용하는 모르는 영어를 풀어쓰는 표현을 익히려려고 해요. 통역사가 직업이 되니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바로바로 메모하고 기억하려 노력하죠. 이스포츠가 인터넷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영어권에서 쓰는 인터넷 유행어를 잘 알기 위해 SNS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해요. 학문적인 접근뿐 아니라 실생활 속 자연스런 접근을 통해 전달력과 표현력도 늘리

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Q7. 과거엔 통역사가 단순히 통역만 했지만 지금은 이스포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등 이스포츠 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통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역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단 말이 두렵긴 해요. 하지만 이스포츠 통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생겼지만 이스포츠 경기는 네트워크 연결만 된다면 대회 진행에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국제대회가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도 했어요. 언어적 수요가 아직 많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Q8. 마지막으로 통역사를 꿈꾸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재학생들에게 졸업생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이란 안전한 울타리를 밟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학생은 뭔가 시도해서 실패해도 다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고 활용하세요. 이스포츠 계열도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많으니 이스포츠 관련 직업을 꿈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롯데칠성음료
유동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앱 바코드

세상 맛있는 ZERO!
칠성사이다 ZERO!

맛은 바로, 칼로리는 제로
Chilsung Cider ZERO
0% ALCOHOL